



# 국민의 자리에서 본다

## 토마토와 계란과 빈깡통과 빈병

노영한

(대한양돈협회 전무이사)

돼지뿐이 아니고 축산을 한다 하는 사람이면 우루과이라운드(UR)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끔 되었다. 축산뿐만 아니고 일반농사를 해도 UR협상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게 되었다.

오죽하면 잘 참기로 유명한 농협과 축협이, 20일에는 그래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온 농어민후계자들까지도 UR협상을 전면 반대하고 나온 것을 보아도 UR협상이 지금 추세로 마무리 된다면 우리나라 농축산업은 단숨에 무너져 농민들은 생업을 잃고 오악새처럼 슬피 울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UR이 무엇이길래 모든 농축산단체들이 반대하고, UR이 타결된 후에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미 우리나라는 농업분야 중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올림픽개최는 물론 잘 사는 나라로 대외홍보도 잘 되어 있어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미 준선진국이 되어버렸다. 1988년 IMF 8조국에 가입하였고, 1989년에는 GATT 11조국이 되었다. GATT의 국제무역수지위원회는 '89년 10월 우리나라를 18조 B항으로부터(BOP) 졸업시킴으로써 이제는 제때하게 국제수지를 이유로 농산물 수입을 제한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다만 하루 아침에 전부 개방하면 어려울테니까 '97년 7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인정받았는데, 이는 97년에 가서 모든 농축산물을 수입개방하라는 뜻이 아니고 7년동안에 단계적

으로 개방을 하라는 것이다.

이제 내실이야 어떻든 국제무역에 관한한 OECD 여러나라와 비슷한 대접을 받아야 되므로, 개발도상국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기야, 우리는 양반정신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고, 체면을 중히 여기므로 얼어 죽으면 죽었지 곁불을 찌지 않고, 물에 빠졌을 때도 차라리 죽음을 택하면 택했지 개해임을 쳐서 나오지는 않는다. 배가 고파도 남이 보는 앞에서는 이빨을 쭈서야 하고, 냉수마시고도 게트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양반노릇 하는데는 상당한 댓가가 지불되어야 하고, 그만한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 허세를 부리는 일에는 도가 텃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난해 BOP졸업으로 국제사회에서 양반노릇 하게 되었다. 이제 양반의 지위 유지를 위해서는 냉수마시고 이빨쭈지는 막대한 고통이 따르고 비용이 들게 되었다. 과거 개도국으로 누려왔던 혜택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무역 등 농축산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구조조정에 일대전환을 강요받게 되었다. UR협상이 타결되면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수입이 개방되고, 모든 정부 정책도 보호나 규제에서 시장기능에 맡겨지고 농업지원정책도 합의 일정에 따라 감축시켜 나아가야 된다.

그동안 무말랭이, 된장 등 비교적 수요가 적은 품목들이 수입되었으나, 이제 UR이 타결되면 개도국

**“ 우리는 지난해 BOP졸업으로 국제사회에서 양반노릇을 하게 되었다. 이제 양반의 지위 유지를 위해서는 냉수마시고 이빨썬시는 막대한 고통이 따르고 비용이 들게 되었다. 과거 개도국으로 누려왔던 혜택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UR협상이 타결되면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수입개방되고, 정부정책도 보호나 규제에서 시장기능에 맡겨진다. 이제 우리는 총론적 반대에서 구체적인 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최대화 하고, 주요 품목을 선정해서 끝까지 비교역적 고려사항 대상품목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

을 졸업한 준선진국으로서 소위 품위유지비를 많이 지불해야 된다.

서비스분야의 개방으로 파리의 리도쇼 같은 초호화 밤업소가 강남유흥가에 상륙하게 되어 서울에 앉아서 리도쇼를 보게 될 수 있고, 내년도에는 위스키 관세를 대폭 내린다니 소주대신 스캇치나 꼬냑을 마시게 되고, 수입쇠고기·수입돼지고기·수입 닭고기와 수입가공 제품으로 그야말로 주지육림(酒池肉林)에서 호화쇼를 보면서 신선 노름을 할 수 있게 된다.

예식장, 장의사, 변호사도 들어온다니 결혼이나 장례의 주례도 흑·백·황색인종중에 일본식·중국식 등 입맛에 맞추어 할 수 있게 된다. 참으로 선진국 노릇하려다 우리 문화를 잃어버릴까 두렵다.

농업이 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 개방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는 재삼 설명할 필요가 없다. 지난 20일 농어민후계자대회에서 농정에 대한 불만 폭발이나 각 도지사의 농정에 대한 위기감 표시와 농림수산부장관의 전경련회의 참석 등은 최근 우리 농촌의 분위기를 잘 표현하고 있다.

9월 7일부터의 농민협회 지방대회는 물론, 8월 28일 농민단체협의회회의 UR과 한국농업의 진로란 주제의 토론회 등 최근 농축산업계의 분위기는 극히 예민하게 되어가고 있다.

최근(8월 15일) 벌어진 동독역사상 최대의 농민

시위는 생산기반이 약한 동독에 서독농축산물이 밀려들어가 대량 파산에 직면한 동독농민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다.

지난 15일 동베르린 알렉산더광장에 모인 5만명의 농민들은 동독측 관리에게 토마토와 계란세례를 퍼부어 봉변을 당했고, 폴라크 농무장관은 야유소리에 끝내 연설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5일 간격으로 분단국가인 독일의 알렉산더광장과 한국의 성환 풀밭에서의 상황은 계란과 토마토대신 빈깡통, 빈병으로 바뀌고, 한 곳의 농무장관은 연설을 끝내 하지 못하는데 비해서 그래도 동방예의지국에서는 3분여의 짧게라도 연설을 했다는 위로를 찾아야 할지, UR타결을 앞두고 이런 일이 앞으로 얼마가 더 있어야 할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 이번 사건으로 동독의 사민당은 현난국의 책임을 회피하고 분노한 동독 시민의 표를 얻기 위해 연정을 떠날 준비를 마쳤다고 한다.

이제 우리도 총론적 반대에서 앞으로는 구체적인 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최대화 하고,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경쟁력을 기르고, 주요 품목을 선정해서 끝까지 비교역적 고려사항 대상품목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준비가 없으면 동베르린의 알렉산더광장에서 있었던 농민시위가 서울의 여의도광장에서 재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